



2024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4일 무주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열린 가운데, 태권도 관련 주요 기관·단체장들과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박태준·김유진·이다빈 선수 등 참석자들이 '금빛 모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태권도 올림픽 종목 30주년

#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

4일, 2024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무주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태권도 올림픽 종목 30주년, 끊임없이 발전하여 성장하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기념식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이동섭 국가위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허승 태권도 9단회 회장, 이소환 국가원 원로회 의장,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와 5개 연맹 등 태권도 관계자들과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황인홍 무주군수, 김영만 한국스포츠협회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 태권도의 날 기념식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박태준·김유진 등 참석

금빛 모래 퍼포먼스 진행

특히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박태준·김유진·이다빈 선수도 참석해 기념 퍼포먼스 등에 함께하며 태권도의 날 기념식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은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태권도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국민 의례와 기념사·축사 낭독, 유공자 표

창,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30주년 기념영상 및 기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념 퍼포먼스는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시범 및 정식 종목으로 개최된 '서울, 바르셀로나,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리우데자네이루, 도쿄, 파리'까지의 모래를 모아 태권도의 날 기념식 슬로건을 표현하는 '금빛 모래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

태권도 진흥과 발전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유럽태권도연맹 회장 박수남 회장을 비롯해 주일 한국군사령부 태권도 교관단 정무희, 국가원 기술실의회 임성근 부의장, 대한태권도협회 임성빈 심판위원장,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민경호 종신 명예교수, 스위스 태권도협회 회장 르네분델리 명예회장 등 12명이 수상했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이사장은 축사에서 "태권도는 213개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무예이자 스포츠로 성장하며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품격있는 명품 태권도 콘텐츠 개발, 태권도 외교를 통한 친한(親韓) 이미지 제고, 중주국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과학 기반 기술 장비 및 경기 장비 개발 그리고 향후 30년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태권도 공공가치 창출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태권도 단체 및 태권도인들과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기자

## K리그 8월 '이달의 선수상' 투표 시작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부터 4일간 8월 K리그 '이달의 선수상' 주인공을 선정하는 팬 투표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EA SPORTS K리그 이달의 선수상'은 매달 최고의 활약을 펼친 K리그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K리그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리그앙 등 유럽 주요 리그에서도 수여하고 있다.

이달의 선수상은 연맹 TSG기술회원의 1차 투표(60%)를 거쳐 선정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차 K리그 팬 투표(25%)와 일렉트로니아 FC 온라인 유저 투표(15%) 결과를 합산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달의 선수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 및 상금 수여, 해당 시즌 유니폼에 이달의 선수상 패치 부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8월 이달의 선수상은 8월에 열린 K리그 26~28라운드 경기에서 활약을 기준으로 했으며, 그 결과 안테르손(수원FC), 아진(서울), 이상현(강원), 이승모(서울)가 후보로 선정됐다. /뉴시스

수원FC 안테르손은 27라운드 울산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고, 이어 28라운드 제주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5-0 대승에 기여했다.

안테르손은 지난 6월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이달의 선수상에 도전한다.

서울의 아진은 8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 중 유일한 수비수로, 지난달 열린 세 경기에 모두 플라임 출전해 단 1골만을 허용하는 탄탄한 수비를 펼치며 서울의 3연승을 이끌었다.

강원 이상현은 지난 4월, 6월에 이어 이번 8월에도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상현은 26라운드 김천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고, 해당 라운드 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서울 이승모는 K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올랐다.

이승모는 26라운드 포항전, 28라운드 강원전에서 모두 결승골을 넣으며 서울의 승리를 이끌었고, 두 경기 모두 MOM과 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되기도 했다. /뉴시스

## 한국 야구, WBSC 세계랭킹 6위로 하락

한국 야구의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세계랭킹이 하락했다.

4일(한국시각) WBSC가 발표한 랭킹에 따르면 한국 남자 야구는 3251점으로 지난달 4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WBSC는 12세부터 성인 국가대표팀까지 각 나라가 최근 4년간 국제대회에서 올린 성적을 바탕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한국이 준우승했던 2019년 프리미어 12 성적이 이번 랭킹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순위가 두 계단 밀려났다. 일본은 4899점으로 세계랭킹 1위를

수성했다. 지난달 콜롬비아에서 열린 15세 이하(U-15) 야구 월드컵을 제패했다.

멕시코(4063점)는 2위를 유지했고, 대만(3706점)은 두 계단 상승한 3위로 뒤를 이었다. 미국(3587점)과 베네수엘라(3489점)는 각각 4위, 5위에 올랐다.

네덜란드(3229점), 쿠바(2736점), 파나마(2494점), 푸에르토리코(2486점)는 7~10위에 자리했다. 도미니카공화국(2262점)은 12위로 추락하며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뉴시스

### 패럴림픽 10연패 금자탑... 보치아란?

# 장애인들이 펼치는 '땅 위의 컬링'

정호원, 남자 개인전 금  
1988 서울 대회부터 10연패  
지난 40년간 금메달만  
11개 획득한 '효자 종목'



정호원 선수(사진 가운데)가 지난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남자 개인전(스포츠등급 BC3)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코치진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올림픽에 양궁이 있다면, 패럴림픽에는 보치아가 있다. 한국 보치아가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정호원(38·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은 지난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남자 개인전(스포츠등급 BC3) 결승전에서 대니얼 미셸(호주)을 4연드 합산 점수 5-2(3-0 1-0 0-2 1-0)로 꺾고 우승했다.

이보다 앞서 강선희(47·한전KPS) 여자 개인(스포츠등급 BC3) 동메달을 획득한 것에 이어 정소영(36·충청남도장애인보치아연맹)은 여자 개인(스포츠등급 BC2) 은메달을, 정성준(46·경기도장애인보치아연맹)은 남자 개인(스포츠등급 BC1)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대회 정호원의 금메달을 포함해 4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패럴림픽 효자 종목으로 이름을 떨쳤다.

정호원의 금메달로 한국 보치아는 1988 서울 대회 때부터 이번 파리 대회까지 10회 연속 금자탑을 쌓는 데에도 성공했다. 지금까지 한국 보치아가 패럴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은 총 11개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까지 더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정호원은 개인 통산 7번째 패럴림픽 메달(금4·은2·동1) 획득에도

성공하며 '보치아 전설'임을 입증했다.

보치아는 장애인들이 펼치는 '땅 위의 컬링'이라고 볼 수 있다. 빨간색 볼과 파란색 볼을 흰색 표적구에 가까이 던지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다만 흰색 표적구가 볼에 맞으면 이동하기 때문에 변수가 더 많이 발생한다.

양 팀은 주어진 6개의 공을 표적구에 최대한 가까이 던지고, 엔드가 종료된 뒤 더 가까이 붙인 팀의 공의 개수로 점수를 합산한다.

모든 엔드가 끝난 뒤 득점의 합을 더해 승패를 결정한다. 개인전과 2인조 경기의 경우 총 4엔드로 이뤄진다. 단체전은 6엔드까지 진행된다.

보치아 경기는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기로 장애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나뉘 경기를

진행하는데, 은메달을 획득한 정성준은 BC1등급으로 경기 도중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공을 던진다.

역시 은메달을 획득한 정소영은 BC2 등급으로, 보조자와 보조장치 없이 홀로 경기에 나선다.

이번 대회 보치아 첫 메달이었던 강선희와 금메달 10연패 역사를 쓴 정소영은 BC3 등급으로, 이들은 보조자와 보조장치가 필요한 뇌병변 장애인 선수다.

BC4 등급 경기는 뇌성마비가 아닌 운동성 장애인 중 기준 이상의 근력을 가진 선수가 나선다.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는 메달을 획득한 정호원, 정성준, 강선희, 정소영 외에도 김도현(44·충청남도장애인보치아연맹)과 서민규(19·안산시장애인체육회)가 참가했다. /뉴시스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2024. 8/31(토) - 9/8(일)



주최: 무주군  
주관: 무주반딧불축제재정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1324-2440